



꽃밭에 동심도 '활짝'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른 3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 조성된 봄꽃정원을 찾은 아이들이 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봄꽃축제'를 열고 마거릿과 가자니아 등 형형색색의 봄꽃 14만 본을 광장에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총학회장 오늘 재선거...갈등 풀릴까

자격 논란·투표율 미달 따라...2팀 출마

조선대는 선거 무효 사태 후 법정 다툼 지속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이 총학생회장 선거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 공용비' 과다 문제에서 촉발된 학생들의 선거 보이콧 사태로 인해 사상 최초로 재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대 역시 선거 투표인명부 축소 의혹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 총학생회장의 직무정지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후보자격 박탈 소송과 투표율 미달에 따른 선거 무효로 혼란을 초래했던 전남

대학교는 4일 총학생회장 재선거를 치른다. 전남대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선거공탁금 제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지난 2004년도 총학생회 선거 이후 13년 만에 세 팀이 참가했다. 지난 2년간 입후보자가 없어 공석이었던 총학생회에도 두 팀이 참가해 학생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 특정 종교가 관여한다'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장에서 각각 한 팀씩이 사퇴했다.

조선대학교에서는 현 총학생회 직무정지에 대한 안전이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최근 조선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박모씨 등 2명이 총학생회장 당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피고 측인 총학생회장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명부를 실제 재학생보다 축소했다'고 이의를 제기

했으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 총학생회장이 항소한다는 뜻을 밝혀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가 소집돼 현 총학생회 직무정지에 대한 안전이 상정됐고, 투표가 진행돼 가결됐다. 지난해 30일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확운위에서 현 총학생회장의 부재에도 안전을 통과시킨 것이다.

확운위는 선거무효와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므로 총학생회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 총학생회장은 "모든 학생이 참여한 총투표가 아닌 투표의 결과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재기자 ej6621@

“광주 식목일 3월 중순으로 앞당겨야”

10년간 평균기온 3.3도 상승

민간기상사업체인 케이웨더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광주의 식목일 평균기온이 식목일이 제정됐던 1940년대보다 3.3도 상승했다.

케이웨더가 식목일이 제정되었던 194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릉, 광주, 대구, 부산, 제주의 식목일 평균기온을 조사한 결과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은 최근 10년간 식목일 평균기온이 1940년대보다 2.3℃ 상승했고, 강릉은 3.9℃가 상승해 6개 도시 중 가장 크게 기온이 올랐다. 부산은 2.3℃ 상승해 6개 도시 중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90년대 중반부터 나뭇잎이 나는 시기와 땅속 온도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이 6.5도일 때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6개 도시의 2월부터 4월까지의 일 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일 평균기온 6.5℃를 기록하는 시점이 평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광주는 평년값 기준으로 일 평균기온이 6.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3월 12일이었고, 최근 10년간 놓고 보면 2월 27일로 나타났다.

/전문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서울~광주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 착수

용산(수서)~송정 1시간 25분

부산 2시간 이내...8월께 운행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산·수서~광주 송정 간과 서울·수서~부산 간 무정차 고속열차(KTX-SRT)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열차 조정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3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횡수의 고속열차가 다니는 평택~오송 구간(하루 편도 176회)을 기준으로 무정차 고속열차가 막힘 없이 종착역까지 직행하기 위해서는 선행 고속열차와의 운행시간 간격이 최소 8분 이상 확보돼야 한다. 시간

적인 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평균 5분 30초인 현행 고속열차의 운행시간 간격을 줄이거나 속도를 높여야 선행 고속열차의 대피와 무정차 고속열차의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진다. 공단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꾸리고 코레일과 SR 등 철도 운영자와는 선로배분 실무협의반을 구성, 열차운행 횡수와 시간·정차역 등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무정차 열차는 오는 8월께 운행될 예정이다.

무정차 열차가 다니면 용산(수서)~광주 송정은 1시간 25분 이내, 서울(수서)~부산은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달뜨기 12:09
해질녘 18:56 달지기 01:33

따뜻한 '청명(淸明)'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6/23	보성	맑음	2/20
목포	맑음	7/19	순천	맑음	7/22
여수	맑음	9/19	영광	맑음	2/20
나주	맑음	2/12	진도	맑음	3/18
완도	맑음	8/21	전주	맑음	5/22
구례	맑음	2/23	군산	맑음	4/19
강진	맑음	2/21	남원	맑음	0/22
해남	맑음	1/20	홍산도	맑음	8/16
장성	맑음	2/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남~남서	0.5	남동~남	0.5
남부	남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5
남해	남바다	서~북서	0.5	남~남서	0.5
서부	남바다(동)	서~북서	0.5~1.0	남동~남	0.5~1.0
서부	남바다(서)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높음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물때

		간조	만조
목포	출몰	00:09	07:56
	몰출	13:10	20:06
여수	출몰	08:54	02:38
	몰출	21:21	15:05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9/14	14/18	13/19	12/19	10/19	8/19	9/19

‘원생 학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합소4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13일 낮 12시 33분께 전남의 한 지역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B양에게 밥을 먹이는데 수차례 손가락을 B양의 목구멍까지 밀어넣어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하는 가해행위 B양의 손을 잡아끌고 약 40분 동안 혼자인 상태로 두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로서 다소 부적절하다 볼 수는 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이르렀다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손가락으로 밥을 총 12회 정도 떠서 먹였는데 이 중 3회는 A씨가 힘을 세게 줘서 B양의 고개가 뒤로 넘어갔고, 이는 A씨가 손가락을 이용해 B양을 밀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여자사 상습 성추행 여수 60대 교사 징역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과 성폭력 등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여수의 한 고교 교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자신의 반 학생 등 모두 4명의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진학상담하던 A양에게 "네 성적이면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다"면서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6차례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을 수차례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학생의 정신적 충격 등이 큰데도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부각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역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